

도, 주요사업 국가예산 반영 총력전

송하진 지사 등 지휘부, 주요 7개 부처 대상 실무선까지 만나 사업 설명 예산 반영 요청

전북도는 2018년 국가예산 주요 중점사업 등 반영을 위해 지휘부가 세종정부청사에서 연일 강행군을 이어가고 있다.

송하진 지사, 김일재 행정부지사, 진홍 정무부지사 등 지휘부는 전북도 국가예산의 주요 7개 부처를 대상으로 실국과장 및 사무관 등 실무선까지 만나 신규사업 및 쟁점사업 설명 등을 통한 국가예산 반영을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송 지사는 지난 22일 부처 방문에 이어 28일 기재부 재정관리국장, 타당성심사과장,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 국토부 도로국장,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 문체부 관광정책관, 산업부 산업기반실장, 자동차항공과장 등을 차례로 만나 사업지원 필요성 등을 설명하고 국가예산에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

특히, 예타조사가 진행중인 사업의 조속한 통과와 예타 신청 중인 사업의 예타 대상사업 선정 필요성을 설

명했고, 제19대 대선공약으로 발굴된 사업은 사전 설명으로 이해도를 높여 반영률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했다.

현재 기재부에서는 31일까지 예산편성 지침을 시달하고 4월 24일경 부처별 한도액(실링)을 결정해 부처에 통보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2월말까지 발굴된 2018년 국가예산 확보대상 사업을 3월부터 실국별로 국가예산확보를 위한 사전 활동 후, 송하진 지사 등 지휘부가 도출된 미온적·부정적사업, 현안사업 등 쟁점사업을 중심으로 예산편성 전 중앙부처를 사전 설득함으로써 국가예산에 최대한 반영시키겠다는 전략이다.

이날 송 지사는 기재부 이승철 재정관리국장과 장정진 타당성심사과장을 만나,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중인 '새만금 수목원 조성', '소리창조클러스터 조성', '안전보호 융복합제품산업 육성사업' 등 3개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협조를 요청했

다.

이어, 농식품부 안호근 기획조정실장 면담을 통해, 현재 새만금 외측 어선 수용능력이 부족한 '가력선착장 확장개발'의 시급성을 설명했고, 민간육종연구단지를 종자수출의 전라기지로 육성하기 위해 '기업 공동육종 종자가공처리센터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말산업을 농촌부가까지 산업으로 육성하고자 전북도를 '말산업 특구 지정'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또한, 국토부를 찾아 호남고속도로 '삼례~김제 구간 6차선 확장'의 시급성과 2020년 새만금 신항만 건설 1단계 준공에 맞추어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건설'의 필요성을 설명했고, '무주~대구간 고속도로 건설'의 예비타당성 대상사업 선정과 '동부내륙권(정읍~남원) 국도 건설'사업의 제4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추가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했다.

환경부 담당자를 만난 자리에서는

매년 AI 발생으로 살처분 비용 등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김제 용지의 '새만금 특별관리지역 지정 및 축산환경개선사업'의 효과성 등을 설명했다.

이 외에도 문체부를 방문해 '전라도 새천년공원 조성사업'과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사업' 추진의 필요성을 설명했고, 산업부를 방문해 '미래형 개인용 항공기 시범도시 조성 사업'을 예타대상사업으로 선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부처 예산편성이 본격 시작되는 4월~5월에도 지휘부에서 지속적으로 부처를 방문해 국가사업으로의 필요성, 우리지역의 적합성 등에 대해 중점 설명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아울러 쟁점사업에 대해서는 지역 국회의원들과 사전 협의에 대응해 나갈 계획으로, 2018년 국가예산이 역대 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광역상수원, 주민들이 지킨다

도, 옥정호·용담댐·동화댐·부안댐 상수원 지킴이 129명 채용 4월~11월 운영

전북도는 옥정호, 용담댐, 동화댐, 부안댐 4개 광역상수원의 수질관리를 위해 지역 주민들을 중심으로 한 광역상수원 지킴이 사업을 추진한다.

지난 2008년부터 운영한 이 사업은 광역상수원의 안정성 확보와 수질개선을 위해 지역주민들을 상수원 지킴이로 채용해 수질오염 행위 등 환경감시 및 계도, 정화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지킴이는 옥정호 43명, 용담댐 56명, 동화댐 15명, 부안댐 15명으로 총 129명을 6개 시·군에서 3월에 지킴이 임무, 환경의식 등 서류·면접 심사를 거쳐 채용해 4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한다.

전북도와 6개 시·군에서 8억36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며, 채용된 광역상수원 지킴이는 1일 6시간, 주 5일 근무한다.

특히, 사행락철 및 토·일요일에 중점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광역상수원 지킴이들은 상수원 관리지역에서의 쓰레기 불법 투기행위,

불법 낚시,어로행위 등 불법·부당한 수질 오염행위 감시 활동을 하며 방치 및 무단 투기 쓰레기, 농업폐자재 수거 등 수질개선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활동도 전개한다.

광역상수원 지킴이 사업은 인근 지역주민이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민간 협력 거버넌스 네트워크 구축으로 상수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데 의미가 있으며, 무엇보다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농촌의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최재용 환경복지국장은 "상수원 안정성 확보와 수질보전을 위해 시·군 지역주민을 활용해 상수원 수질오염 행위에 대한 상시감시, 정화활동 등을 통해 오염행위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도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맑은 물 수질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광역상수원 지킴이들은(129명) 932건의 환경 감시 및 계도를 했으며, 143톤 정도의 쓰레기를 수거한 바 있다. /인재용 기자

김병만 전북관광 홍보대사 위촉

완주 출신의 개그맨 김병만이 28일 전북관광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전북도는 국내외에 인지도가 높고 친근한 이미지인 김병만과 함께 전북 방문의 해를 본격 홍보할 계획이다.

김병만은 TV 프로그램 '달인'과 '정글의 법칙'에서 끊임없는 도전을 통해 불가능을 가능으로 성취해내는 과정을 풀어내 유명세를 얻었다.

편안하고 친근한 이미지에 도전적인 자세로 어려움을 극복하는 이미지가 3,500만명 유치라는 큰 목표를 향해 뛰는 '전북방문의 해'의 도전정신과 일맥상통해 김병만을 홍보대사로 위촉하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병만은 "홍보대사로 위촉해준 고향에 감사드린다"며,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와 FIFA U-20 월드컵대회 성공 개최와 전북투어패스 일리는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전북도는 완주 출신의 개그맨 김병만을 28일 전북관광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도는 국내외에 인지도가 높고 친근한 이미지인 김병만과 함께 전북방문의 해를 본격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도선관위, '선거사진대전' 작품 공모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5월 9일 실시하는 제19대 대통령선거의 의미와 중요성을 되새기고 아름다운 선거의 가치를 확산시키기 위해 제5회 '선거사진대전'을 개최한다.

공모 주제는 제19대 대통령선거를 희망,공정,화합의 가치를 담은 아름다운 선거로 만들자는 의미에서 '아름다움'과 '선거' 2개 분야다.

'아름다움' 주제는 아름다움을 표현

한 사진, '선거' 주제는 제19대 대통령선거 현장의 생생한 모습을 찍은 사진을 담고, '아름다운 선거'와 사진에 대한 한 줄 평을 남기면 된다.

도민 누구나 5월 16일까지 자신의 SNS 인스타그램(Instagram)에 사진을 게시하고 해시태그(#선거사진대전#선거#전북)만 입력하는 간편한 방법으로 응모할 수 있으며, 작품 수는 제한이 없다. /인재용 기자

법인지방소득세, 5월 2일까지 신고 납부

전북도는 2016년도 12월말 결산법인은 법인지방소득세를 5월 2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 및 국내에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2016년도 귀속 법인소득에 대해 4월 1일부터 5월 2일까지 온라인 신고납부서비스인 위택스나 사업장소재지 시군구에 신고납부

법인지방소득세, 5월 2일까지 신고 납부

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두 개 이상 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법인지방소득세를 안분해 신고·납부하지 않고 하나의 자치단체에만 일괄 신고·납부한 경우, 나머지 자치단체 대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니 주의해야 한다.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은 재무제표와 세무조정계산서 첨부서류가 면제되고 또한 법인지방소득세 결정 청구 시 각 사업장 소재지마다 신청서를 제출해야하는 종전방식과는 달

리, 과세표준에 대한 결정정구는 본점 소재지 자치단체에 일괄 신청하는 방법으로 신고 절차를 간소화해 납세 편의를 도모했다.

도 관계자는 "마감일 4월말에 신고가 집중될 경우 전산지원 등으로 인해 원활한 접수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서둘러 위택스를 통한 전자신고를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인재용 기자

삼락농정 거버넌스 교육과정 운영

전북도는 '삼락농정을 실현하고, 농업인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농정 거버넌스 체계 확산을 위해 삼락농정 거버넌스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삼락농정 거버넌스 교육은 김제 백구 농식품인력개발원에서 총 4회 진행되며, 참석대상은 시·군 공무원, 농업인단체 및 유관기관 관계자, 생생마을 운영자 등이며, 농정 패러다임 변화와 지역농정의 역할, 삼락농정 정책방향, 농정거버넌스 필요성과 지역역더 역할 등에 대해 교육한다.

김일재 삼락농정위원장은 "올해부터는 삼락농정의 핵심 정책들이 농업·농촌 현장에서 결실을 맺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도, 고군산군도 일제 대청소

전북도는 28일 군산시, 새만금개발청, 군부대, 환경단체와 지역주민 등 3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고군산군도 일제 대청소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관광객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해안쓰레기가 수시 발생하는 점을 감안해 마련됐다.

도는 다음달부터 어촌마을 환경정비 시범사업비 5억을 투자해 해양쓰레기와 마을의 환경정비를 대대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내년 1월부터는 고군산군도 연결도로가 전면 개통됨에 따라 청소차량이 매일 출입할 수 있어 쓰레기종량제를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인재용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ijmaeil.com